

고등학교

드림 레터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다국어기획호

전국학부모지원센터 www.parents.go.kr

2019년 다국어 기획호

글로벌 비즈니스 시대, 다문화 경쟁력으로 자녀의 진로를 준비해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무대는 넓어지는 중

흔히 미래 사회는 다문화사회라고 말합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경제 시스템 또한 글로벌화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족 중심, 인종 중심의 이데올로기는 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세계시민으로서의 포용성과 개방성이 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야에서 국제적 교류와 비즈니스가 찾아지는 만큼 두 개의 언어, 두 개의 문화에 익숙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활약할 수 있는 무대 또한 넓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중언어인재는 미래 국가 자산이자 경쟁력

단적으로는 미래 글로벌 비즈니스 세계에서 번역이나 통역 등 언어계통 직업에서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주축으로 떠오르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이중언어 인재들은 국가적인 자산이자 경쟁력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최근 국내 여러 기업들은 이중언어가 가능한 인재들을 전문 무역인으로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문화와 언어를 교육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적성과 흥미에 따른 강점을 키워주세요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이중언어, 이중문화라는 강점 때문에 글로벌 인재로서 성장할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교문화 콘텐츠 크리에이터,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등 여러 분야가 융·복합되는 미래 직업세계의 주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 대상 교육·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등 신종 직업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녀 개인이 가진 적성과 흥미, 강점을 발견하고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다가올 미래 사회는 우리 자녀들이 이끌게 될 것입니다.



가까워진 다문화 시대 다문화 이중언어 인재를 키워요



“우리 아이들은 글로벌 세대이자 남북통일 세대 될 것”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중언어 강사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손○○ 씨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부모의 모국어를 배우면서 자기 정체성에 자긍심을 갖는 등 정서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손 씨는 12살과 5살 아들들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며 “우리의 아이들은 글로벌 세대이자 남북통일 세대가 될 것”이라며 “한국인 남편도 러시아어가 경쟁력이라며 아이들 러시아어 교육에 적극 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학생들도 함께 외국어 수업을 받을 수 있다면 외국어 능력과 함께 다문화 감수성도 높이는 교육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중언어와 이중문화 역량은 문화적 유연성을 높여 글로벌 시대에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미래의 경제와 외교를 이끌어 갈 ‘다문화 신세대’인 셈입니다.

출처: “이중언어 교육 체계화”, 머니투데이, 2018.10.18.

2019년 발표된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학생은 연평균 약 18만 명 감소한 데 반해, 다문화학생은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해 2019년 1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다문화 국가가 가까워지고 있는 셈입니다. 세계화 시대, 다문화 국가에서는 이중언어, 이중문화에 익숙한 다문화 청소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두 가지 언어, 두 가지 문화적 배경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 이중언어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중언어학습을 장려하기 위해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를 확대 추진하는가 하면,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 학습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책 형태의 이중언어교재를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진로탐색을 위한 ‘어울림 원격영상 멘토링’을 확대해 다문화학생은 물론 모든 학생이 멘토링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부처와 전국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이중언어 인재를 발굴하고 통번역사와 국제교류 등 이중언어 인재를 필요로 하는 곳과 이어줍니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취업, 해외인턴 장학사업 등의 기회도 제공됩니다.

간혹 외모의 차이, 언어의 차이로 인해 심리적 거리감과 소외를 경험하는 다문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역사회, 공공기관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자존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정서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재능과 역량을 발굴하기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중입니다. 또한 베트남, 중국 등 국외 현지에서 이중언어 캠프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한다면 각 시도교육청이나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해 보세요. 자녀 진로·진학 지도를 위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https://www.liveinkorea.kr>)’를 기억해 두세요. 자녀의 연령대별로 교육, 진학 및 진로지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며 학교폭력 예방이나 안전한 학교생활, 성적표 읽기 등의 기초적인 정보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진로



한국어 구사능력이 다소 모자라다고 느끼는 자녀들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중언어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출중한 한국어 구사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이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한국어 실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준비과정을 통해 한국어 학습방향 설정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또한 시험 결과를 진학 및 취업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 우리 자녀들이 꿈을 이루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http://www.topik.go.kr>)에서 기출문제와 듣기시험 파일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http://www.topik.go.kr>) 바로가기 ▶

